

11. 다음 중 <보기>와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보기>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것이로다.

- ① 김주영의 「객주」 ② 이범선의 「오발탄」
- ③ 박경리의 「토지」 ④ 황석영의 「장길산」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 마당이 넓다.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짐작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철수 밥 먹는다.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 ① 登高自卑 ② 角者無齒
- ③ 騎虎之勢 ④ 曆亡齒寒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 ㉠ 「삼대」, 「흥」,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 『인문평론』, 『문장』 등 우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중」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①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7.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① 【...에】 ①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②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③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④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 ②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 ③ 【...에/에게 ...을】
 ①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②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지 깨우쳐 주다.

- ① ①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 ② ①③: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 ③ ②: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 ④ ③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ㄹ,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ㆅ, ㄷ, ㅌ, ㅍ,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빙'이 있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타협점은 √커녕 √점점 √갈등만 √커지게 √되었다.
- ②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람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 ③ 그 √만큼 √났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만큼만 √상자에 √담으렴.
- ④ 나는 √나대로 √갈 √데가 √있으니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溫古知新 ② 麥秀之嘆
- ③ 識者憂患 ④ 左考右聘